

2. 모든 인생은 선악 간에 심판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말과 마음을 품고, 의로운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에 성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결코 포기할수 없는 이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행위와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뿐 아니라 반드시 선악 간에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현실의 모순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아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송 384장 다 같 이

1.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2. 예수 예수 내주여 마음아파 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 하소서
3.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후렴] 예수 예수 내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다 같 이

추 도 예 배 순 서 지

예배의부름 다 같이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이 시간 고인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추도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380장 다 같이

1. 나의 생명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2. 괴론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3.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후렴]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기도 가족 중

성경봉독 전 12: 13~14절 다 같이

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말 씀 사람의 본분 인도자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고인을 추모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추도예배를 통해 고인이 남긴 믿음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남겨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후대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남기는 인생 사용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근본적인 지혜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솔로몬은 이 땅을 살면서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부족함 없이 누렸던 그에게도 죽음의 문제는 찾아왔습니다. 건강했던 육체도 점점 노쇠함을 느꼈고, 그동안 먹고 누리던 것에도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시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노년에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은 이것이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자 인생의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때에만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명령을 지킬 때에만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일시적으로 기쁨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지속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은 오직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에만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